

돈은 행복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불평만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냥 행복해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있고 없고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돈을 벌기보다는 마음을 닦는 일이 행복을 위해서도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100점 만점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9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으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종합병원 이상 233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됐으며, 평가결과 종별 평균 89.37점, 전체 평균 91.32점 보다 높은 100점을 획득하여 뇌졸중 치료 최우수 병원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고 있으며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을 운영하는 A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진료과정 지표조사에서도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t-PA)투여율(60분 이내)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등의 평가지표에서 모두 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동국대학교병원은 전문 인력 현황, 초기진단 및 치료 체계에 있어서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최우수 병원임을 입증했다.

산부인과 김란희 교수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우수 구연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란희 교수가 지난 7월 진행된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제29차 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김란희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 원인불명 난소부전 환자에서 PCMT1 유전자의 다형성의 상관성 조사’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원발성 난소기능부전의 원인 중 하나인 PCMT1 유전자의 다형성과 난소 기능부전의 연관성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지 않게 나타났다. 앞으로 난소기능부전의 원인을 찾는 후속 연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경외과 외래 이전 개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신경외과 외래를 8월 1일자로 병원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해 진료를 개시했다. 이번 외래 이전은 최신 양면 디지털 혈관조영장치 도입과 함께 환자들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하였다.

권범선 병원장은 “이번 외래 이전을 통해 독립된 공간에서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도 내원객들의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숭고한 뜻을 새기어
생명 존중과 자비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기간▶ 2022. 7. 1. ~ 7. 31.

376 명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 문의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

(단위 : 원)

영수스님	50,000,000
글로벌금융판매(주)	12,000,000
일심스님	10,000,000
하연스님	7,400,000
모경개발(주)	6,000,000
덕성개발(주)	5,000,000
유동렬	1,000,000
(재)법보선원(용화선원)	1,000,000
윤문사 사리암	1,000,000
자광스님	1,000,000

외 366명